신형 골프 GTI

폭스바겐, 다양한 골프 라인업으로 수입 소형 세그먼트 시장 선도

신형 골프 GTD





신형 골프 GTI와 GTD는 이전 모델보다 15mm 낮아진 스포츠 서스펜션의 적용과 차체 비율의 변화를 통해 더욱 카리스마 넘치는 디자인으로 재탄생했다. 프로그레시브 스티어링 휠, 드라이빙 프로파일 셀렉션 등 운전의 재미를 강화하는 첨단 기술도 대거 적용됐다. 사진제공 | 폭스바겐코리아

더 강해진 골프 GTI·GTD…원조 핫 해치 명맥을 그대로 잇다

〈고성능 해치백 승용차〉

■ 골프 GTI

최고 211마력·제로백 6.8초 '작은 괴물'
55kg 감량·6단 DSG 변속기로 더 민첩

■ 골프 GTD

디젤 스포티 퍼포먼스 32년 역사 결정체
리터당 16.1km…고효율 복합연비 자랑

국내 수입차의 새로운 핵심 시장은 3천만원대 디젤 세그먼트다. 이 시장에서 독보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브랜드는 폭스바겐코리아다. 폭스바겐코리아는 올해 3천만원대 모델 판매량에서 6648대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 중이다. 개인 판매 1위, 20~30대 판매율 1위 브랜드도 폭스바겐이다.

지난해 2만5649대의 판매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39.4%의 성장률을 기록한 폭스바겐코리아는 올해 4월까지 9668대 판매를 달성하며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3.2%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 같은 인기 비결은 해치백부터 세단, SUV, 쿠페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고객층을 공략할 수 있는 탄탄한 모델 라인업에 있다. 특히 폭스바겐의 핵심 차종이자 자존심인 골프 라인업 강화는 지속적인 판매량 상승의 핵심 키워드다. 폭스바겐코리아는 5월 골프 1.4 TSI 블루모션을 출시한데 이어, GTI와 GTD 등 고성능 핫 해치(고성능 해치백 승용차) 모델을 연달아 출시해 소형 세그먼트를 중심으로 수입차 성장을 이끌어온 리더십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핫 해치의 아이콘 '골프 GTI'

골프 GTI는 핫해치의 전설이자 폭스바겐의 혁신적인 디자인과 기술을 대변하는 하나의 아이콘이다. 이름만으로도 자동차 마니아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GTI와 GTD의 신형 모델이 5월 29일 출시됐다.

골프 GTI가 첫 선을 보인 건 1975년이다. 당시 소형차로는 전례 없는 강렬한 캐릭터와 아우토반 1차선을 182km/h의 속도로 질주하는 놀라운 주행 성능으로 전 세계 자동차 마니아들을 매료시킨바 있다. 새롭게 출시된 7세대 골프 GTI는 6번의 진화를 거쳐 더욱 강력하게 변신했다.

폭스바겐그룹의 차세대 생산전략인 MQB(Modular Transverse Matrix: 가로배치 엔진전용 모듈 매트릭스)에서 생산됐으며, 1984cc 직렬 4기통 가솔린 직분사 터보차저 엔진(2.0 TSI)이 장착됐다. 또 이전 모델 대비 55kg 감량한 경량 설계, 6단 DSG 변속기, 곡선 도로에서 더욱 민첩한 반응을 제공하는 프로그레시브 스티어링 등이 탑재돼 더욱 역동적인 운전의 재미를 선사한다. 최고출력은 211마력(4500~6800rpm)이며 1450~4000rpm의 실용영역에서 35.7kg·m의 강력한 최대토크를 낸다. 정지 상태에서 100km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6.8초에 불과하다. 복합연비는 11.5km/l(도심 10.0/고속 13.9)이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53g/km로 극초저배출기준(SULEV)을 충족시킨다.

디자인에서도 진보했다. 스포츠 서스펜션을 적용해 일반 골프 대비해서는 약 15mm가 낮아졌다. 정면에는 GTI의 상징인 허니컴 라디에이터 그릴이 여전한 위용을 뽐낸다. 이를 가로 지르는 레드&크롬 스트립은 LED 주간 주행등이 포함된 바이제논 헤드라이트까지 연결돼 날카로운 캐릭터 라인을 완성했다.

이 밖에도 3개의 블랙 에어로 다이내믹 슬랫과 프론트 스포일러 하단에 위치한 새로운 블랙 스플리터, LED 전방 안개등이 추가돼 매력을 더했다.

●신형 골프 GTI, GTD 주요 제원

제원	신형 골프 GTI	신형 골프 GTD BlueMotion
전장/전폭/전고 (mm)	4255/1800/1450	4255/1800/1450
휠 베이스 (mm)	2640	2640
공차중량 (kg)	1440	1430
승차정원 (명)	5	5
엔진 형식	직렬 4기통 가솔린 직분사 터보차저	직렬 4기통 디젤 직분사 터보차저
배기량 (cc)	1984	1968
최고출력 (ps/rpm)	211 / 4500 – 6800	184 / 3500 – 4000
최대토크 (kg · m/rpm)	35.7 / 1450 – 4000	38.7 / 1750 – 3250
구동형식	전륜구동	전륜구동
변속기	6단 DSG 듀얼 클러치	6단 DSG 듀얼 클러치
복합연비 (km/L)	11.5(4등급)	16.1(1등급)
가격(VAT포함)	4,350만원	4,240만원

●고성능에 높은 연비까지 '신형 골프 GTD'

골프 GTD 5세대는 강력한 성능과 효율성을 모두 갖춘 디젤 스포티 퍼포먼스 자동차다. 1982년 첫 출시된 후 자신만의 독창적인 영역을 개척해 왔다. 디젤 스포티 퍼포먼스 세그먼트에서 30여 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모델은 GTD가 유일하다. 차세대 4기통 TDI 엔진을 장착한 신형 골프 GTD는 이제까지 출시된 골프의 디젤 차량 중 가장 강력한 성능으로 새롭게 탄생했다.

최고출력은 이전 세대 대비 14마력 증가한 184마력(3500~4000 rpm)이다. 최대 토크는 무려 38.7kg·m에 이른다. 정지 상태에서 100km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7.5초.

특히 듀얼 클러치 방식의 6단 DSG 변속기와 더불어 GTD 최초로 폭스바겐의 친환경 기술인 블루모션 테크놀로지가 접목됐다. 이를 통해 리터당 16.1km라는 높은 복합연비(도심 14.4/고속 18.8)를 자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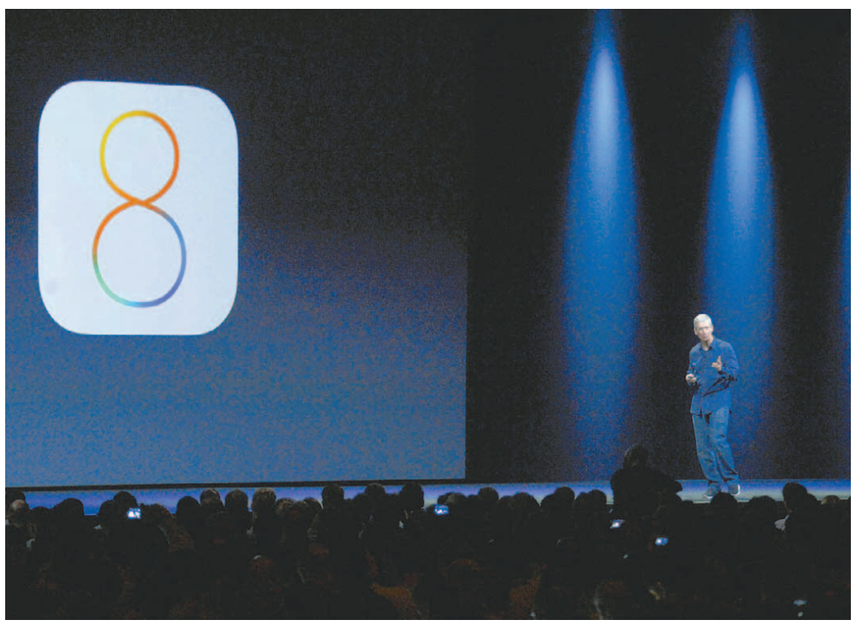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트위터 @serenowon

베일 벗은 iOS8…헬스케어·사물인터넷 경쟁 거세진다

애플, 신규 모바일 운영체제 'iOS8' 공개
헬스 앱 더불어 헬스·홈키트 플랫폼 제공
헬스케어·스마트홈 시장 본격 진출 나서

애플의 새 모바일 운영체제(OS) 'iOS8'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애플은 3일(한국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콘센터에서 열린 세계개발자대회(WWDC)에서 맥용 OS X '요세미티'와 함께 모바일 OS iOS8을 공개했다. 특히 매년 새롭게 발표되는 애플의 모바일 OS는 향후 정보기술(IT)산업의 방향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았다. 이번에 공개된 iOS8은 가족끼리 구입한 콘텐츠를 공유하는 '패밀리 쉐어링' 등 새로운 기능이 대거 적용됐다. 하지만 그보다 더 눈길을 끈 것은 차세대 격전지로 꼽히는 '헬스케어'와 '스마트홈' 관련 기능이다.



애플의 새로운 모바일 운영체제(OS) 'iOS8'이 공개되면서 '헬스케어'와 '스마트홈' 분야가 차세대 IT격전지로 부상했다. 팀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콘센터에서 열린 WWDC에서 iOS8을 소개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미국) | 신화뉴시스

●건강관리도 스마트하게

먼저 iOS8은 '헬스' 애플리케이션과 관련 플랫폼인 '헬스키트'를 제공한다. 헬스 앱은 다양한 피트니스 기기에 기록된 정보를 모아 정리해서 보여준다. 또 개발자들은 헬스키트를 통해 다양한 앱을 제작할 수 있다. 특히 사용자가 허용할 경우 각기 다른 앱에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혈압 측정 앱에서 진료 앱에 있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담당의사로부터 보다 정확한 설명과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헬스케어는 스마트폰의 새로운 경쟁 분야 중 하나다. 애플의 최대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경우 이미 '갤럭시S5'에 헬스케어 기능을 구현했고, '삼성기어핏' 등 헬스케어 웨어러블(입는) 기기도 내놨다. 아울러 헬스케어 기기와 연동되는 건강 관련 앱 개발도구(SDK)인 'S헬스' 를 공개하기도 했다.

●사물인터넷이 집과 차도 똑똑하게

스마트홈 시장 공략을 노린 홈키트도 iOS8 발표에서 관심을 모은 부문이다. 홈키트는 가전기기 등을 스마트폰에 연결해 주는 기능이다. 집안에 있는 기기와 스마트폰을 연결해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음성인식 기능 '시리'를 통해 '나 잘거야'라고 말하면 불빛이 어두워지고, 문은 잠긴다. 또 차고의 문이 닫히고, 집안의 온도도 취침으로 설정해 준다.

스마트홈 시장도 헬스케어와 마찬가지로 차세대 먹을거리로 주목받고 있는 분야다. 삼성전자는 올해 초 '삼성 스마트홈'을 공개한 바 있으며, 구글도 스마트폰으로 실내 온도조절을 하는 제품을 개발한 네스트랩을 거액에 인수하며 시장 공략에 나섰다.

특히 이러한 스마트홈 경쟁은 향후 다양한 사물인터넷(IoT)도입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자동차. 애플과 구글은 올해 초부터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과 손잡고 스마트카 시장 공략에 나섰다. 삼성전자도 웨어러블 기기로 자동차를 원격 제어하는 상황을 시연하는 등 관련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애플이 이날 출시한 맥용 OS X 요세미티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등 iOS 기반 기기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삼성에버랜드 상장 추진, 경영권 승계 급물살 타나?

이재용 부회장, 차익으로 지분 매입 관측

삼성그룹의 대표적인 비상장사였던 삼성에버랜드가 상장을 결정해 재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삼성에버랜드는 3일 이사회를 열고 상장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에버랜드는 상장 배경에 대해 "지난해 재편된 사업부문들의 사업경쟁력을 조기 확보, 글로벌 패션·서비스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삼성에버랜드는 이달 안으로 주관회사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추진일정과 공모방식 등을 결정할 예정인데, 내년 1분기까지 상장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상장 결정에 대해 재계 일각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는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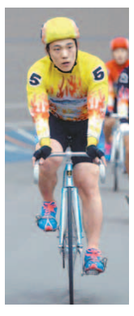
삼성에버랜드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3.72%),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25.1%),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8.37%), 차녀인 이서현 삼성에버랜드 패션부문 사장(8.37%)이 삼성에버랜드 지분을 갖고 있다. 또한 삼성카드로부터 2011년 삼성에버랜드 주식을 매입한 KCC가 42만5000주(17.00%)로 2대 주주에 올라 있다.

증권가에서는 상장할 경우 삼성에버랜드의 시가총액 규모를 약 7조4000억원 정도로 보고 있다. KCC가 삼성에버랜드 지분을 주당 182만원에 매입한 이후 이 가격이 시장의 공정가격처럼 되어 있어 이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다. 이중 최대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분가치는 약 1조1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 부회장을 비롯해 이건희 회장(1693억원), 이부진·이서현 사장(각각 3806억원) 등 일가 지분을 모두 합하면 약 2조724억원에 달한다. 이 부회장은 이번 상장 차익을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지분 매입과 상속세 재원 등으로 사용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kobaukid

모태범, 경륜서도 '모터범'

광명스피돔 경륜 이벤트 경기 우승



"동계는 스케이트, 하계는 사이클 대표로 올림픽 출전하면 되겠네." 빙속 스타 모태범(25·사진)이 자전거 레이싱에서 현역 프로경륜 선수들을 꺾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의 감탄이 이어졌다. '최재봉에 이어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경륜 선수 2호가 탄생하는 게 아니냐'는 조심스런 예측도 나온다.

모태범은 지난달 31일 광명스피돔에서 열린 경륜선수와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간 이벤트 경륜경기에서 깜짝 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경주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가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들이 하체근력 강화를 위해 사이클 훈련을 한다는 점에서 착안해 기획했다. 모태범, 이승훈(26), 주형준(23) 등 올림픽 메달리스트 3명이 출전했다. 이 경기에서 모태범은 선도유도원이 주로를 빠져나간 직후 선두로 치고나와 경륜선수들을 간발의 차로 제치고 맨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빙속 단거리 세계챔피언 출신 다운 폭발적인 스퍼트가 압권이었다. 현장에서 경기를 지켜본 경륜팬은 "모태범이 '모터범'으로 불릴 만큼 단거리에 강하지만 그건 얼음판에서의 얘기가 아닌가. 평소 자전거 훈련을 한다지만 설마 프로 자전거 선수를 꺾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경륜선수로 전향해도 경쟁력이 충분할 것 같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김재학 기자 ajapto@donga.com 트위터@ajapto